

내용들을 이처럼 간결하게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간혹 너무 간결하여 독자들의 의문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부분도 더러 있는 것 같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새로 쓴 ‘총설: 화폐금융사의 연구 동향’(1장) 부분은 필자도 검토에 참여한 터라 일종의 이해상충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평가를 덧붙여야 할 것 같다. 8편의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뿐만 아니라 다루지 못한 많은 주제들까지 포괄하여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있는 이 글은,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들만 엄선하여 화폐금융사의 거의 모든 주제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그만큼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소중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고 일반 독자들에게는 매우 값진 읽을거리 안내도의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참고문헌이 22페이지인데 본문이 22페이지일 정도로 압축적으로 소개하는 데 따른 비용도 있다. 예를 들어, 대립되는 시각이나 연구 동향의 변화가 진행된 배경 등을 부각시킬 여유가 충분히 허락되지 않은 점 등이다.

2007-2009년의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경제학 교육에서 경제사 교육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경제학 교육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화폐와 금융의 역사 연구에 대한 빼어난 연구서이자 안내서인 이 책이 경제사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및 화폐금융 분야의 연구자들과 학생들에게도 소중한 교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경로(경북대학교)

선재원 지음

『사회적 합의의 역사적 교훈—일본의 구조조정과 노사정관계, 1890-1990』

도서출판 해남, 2015, 238쪽

이 책은 일본의 산업화와 근대화가 시작된 19세기 말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이 되었던 20세기 말에 이르는 한 세기 동안에 노사정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일본에서는 노사정 관계가 원만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는 이유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서 인원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고찰로 구체화되었다. 저자는 노동자가 노사관계에서 당사자의 위상을 확립하게 되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부흥기에 이루어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과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가하여 발언권을 행사함으로써 구조조정과 장기고용 보장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동시에 달성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요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서장은 문제의식과 시각을 제시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보다 노사정

관계에 초점을 맞춘 접근방법을 강조하고 있다. 제1장은 국제비교를 통해 일본에서는 노동시장의 법적 규제 수준보다 실질적인 고용보장 수준이 높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정년제에 의한 장기안정고용과 구조조정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병존하고 있는 고용관행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제2장은 전전 사용자의 노사관계관을 분석하고 있다. 노사일체를 강조하는 온정주의는 공황과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무력화되었으나 노동자를 당사자로 인정하는 인격주의적 노사관계를 주장한 선구적 사용자의 존재가 전후에 노사정관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제3장은 방직업체인 가네보의 사례를 들어 경영가족주의에 입각한 온정주의가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이 일본에 파급된 쇼와공황기에 임금 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계를 노출하였으며,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조합법의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제4장은 미군정 하에서 전후 개혁이 추진된 패전 직후부터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이르는 부흥기(1945-1949)에 실시된 경제 재건을 위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노사의 위기의식 공유와 정부의 정책적 유도를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정부가 노동조합이 기업정비계획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용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제5장은 쇼와공황기와 전후 부흥기의 구조조정을 업종·직종별로 비교하고 있다. 부흥기에는 중화학 부문 대기업의 직원층이 중점적인 구조조정 대상이었으므로 직원과 공원에 대한 고용보장 수준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또한 근속연수가 짧고 연령이 낮은 집단이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에 참가하는 집단은 제외되었다. 이는 노사 합의가 성립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6장은 비료를 비롯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쇼와정공의 사례를 들어 부흥기에 진행된 노사관계의 변화와 구조조정 과정을 고찰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의 제정과 노동조합의 교섭력 향상으로 회사는 구조조정 대상자 선발 기준을 신중하게 설정하게 되었으며 희망퇴직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제7장은 전기기계 제조업체인 도시바를 사례로 들어 부흥기의 구조조정을 고찰하고 있다. 과잉 인원의 실태, 단체교섭과 경영협의회 운영과정도 소개되어 있다. 저자는 특히 1949년 쟁의의 결과에 대해 대규모 해고가 실시되었지만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실질적으로 확인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제8장은 재차 쇼와정공의 사례를 들어 구조조정 이후에 직제와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노사협의를 통하여 생활급 산정 기준에서 연령보다 근속의 비중이 높아지고 직무급의 요소가 도입되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직무 순환과 직무 응원을 통해 노동력 배치의 유연성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과정도 분석되어 있다. 제9장은 1973년의 제4차 중동전쟁으로 발생한 석유파동 이후의 저성장 시대에 진행된 구조조정을 조선업체인 사세보중공업의 사례를 들어 고찰하고 있다. 당시 일본의 노동조합이 합리화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 산업정책 결정과정에 참가하였다. 사세보중공업에서는 고연령층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저연령층 위주였던 부흥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희망퇴직자 선정에 개입할 수 있었다. 종장에서는 일

본의 노사는 대립하면서도 합의를 도출하고 존중하였으며 일본의 노사관계에서도 긴장과 협조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다. 즉, 일본적 특수성에 입각한 일본적 노사관계에 대한 설명이 배격되어 있다.

이 책은 주체 간의 불신으로 파행이 지속되는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를 달성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개한 역작이다. 저자는 노동자의 인격적 주체화가 시작되는 계기를 전시의 산업보국회 및 국가총동원 체제에서 찾는 일본 학계의 기존 논의를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 책의 행간을 보면 일본 노동자의 정치적 발언권을 저평가하는 서구 학계의 기존 논의에 대한 이의도 제기되어 있다. 옥의 티를 하나 찾는다면, 저자 스스로 소수집단이라고 지적한 장기고용 체제 하에 있는 민간 대기업 노동자를 기준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역설적으로 이 연구는 일본적 노사관계의 그림자 부분에 해당하는 이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형성되는 배경에 대한 고찰이기도 하다. 총체적으로 보아 저자의 가장 큰 학문적 공헌은 한국 연구자가 독자적인 시각으로 호흡이 긴 일본 연구를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이종구(성공회대학교)

이헌창 지음

『경제, 경제학』

소화, 2015, 520쪽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이름의 기원이 무엇인지 대해 한 번쯤 의문을 가져 보았을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준말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 한편 세계적으로 경제학의 이름은 본산지인 영국에서 만들어진 economics라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경제학’과 ‘economics’는 서로 잘 맞는 개념인가? 지금까지 이런 물음에 답하려는 연구는 없었다. 이 책은 필자가 아는 한 그런 물음에 답하려는 최초의 본격적 연구이다. 이헌창 교수는 이 책에서 단순히 그런 물음에 답하는 것뿐 아니라 경제 및 경제학의 개념의 발전과정에 대해 방대한 연구를 하였다.

I

이 책은 모두 7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경제학의 이름의 유래가 된 economy, political economy 및 economics의 개념사로서, 고대 그리스에서 oikonomikos 개념의 성립과 political economy 어원의 출현, 고대 로마와 중세 유럽에서의 그리스 oikonomia 개념의 계승 등을 논한 뒤, 근세 유럽 중상주의 시대 political economy 용어의 대두,